

다시피 저 아래 평원에 종탑이 솟아 있는 왕굴나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다네. 성당에는 가마를 타고 올 정도로 부유한 주민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토록 화목한 이 두 가족과 친분을 맺으려고 하거나, 모임에 나와서 놀다 가라고 초대하며 빈빈이 줄라대곤 했지. 하지만 두 가족은 늘 예의와 존중을 다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으니, 이는 강자는 오로지 비위 맞춰주는 자들을 얻고자 약자를 찾고, 그렇게 비위를 맞춰주려면 좋은 싫든 타인의 정욕에 따라 아첨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까닭일세. 반면 두 가족은 평소 시기가 많고 남을 잘 헐뜯으며 무례하기까지 한 서민들과의 교제에는 조심성도 덜했고, 딱히 피하지도 않았다네. 그런 그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 옆에서는 수줍음 많은 사람들로, 또 어떤 사람들 옆에서는 자존심 강한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그들의 사려 깊은 행실에는 특히 비참한 자들을 향한 너무도 살가운 경애의 표식이 수반되었기에, 어느새 서서히 부자들의 존경과 가난한 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어.

미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곧잘 그들에게 다가와 이래저래 도움을 요청하곤 했네. 어떤 사람은 상심에 빠져 조안을 구했고,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어린아이는 아픈 어머니가 계신 집에 들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 두 가족은 주민들이 흔히 앓는 병에 효험이 좋은 몇 가지 민간요법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다녔고, 거기에 정성스레 축복까지 담아